

POST-TRUTH (BY LEE MCINTYRE)

April 28. 정 신 희

1. WHAT IS POST- TRUTH?

In times of universal deceit, telling the truth will be a revolutionary act.
보편적인 기만의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 George Orwell

“탈진실” 현상은 2016년 11월에 옥스포드 사전 2016년의 단어로 선정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2015년 동안 그 단어의 사용량이 2000 퍼센트 오르면서 그 결과는 당연했다. 후보 단어 명단에는 “alt-right”와 “Brexitteer”이 있었으며 그 해의 정치적 정황을 잘 보여주었다. 모든 것을 두루 망설하게 이야기 했을 때, “post-truth”(탈진실)이 그 당시 상황을 사로잡았다. 사실이 불명확해지고 이성의 증거적인 기준을 잃어버렸으며 노골적으로 2016년의 Brexit 투표와 미국 대선이 거짓말이어서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증거 없이 그가 대선을 졌고 그것은 그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사실과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post-truth>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적인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언급하거나 상징하는 것.

이러한 탈 진실 정치시대에서, 당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별하고(성과만 취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쉽다.

“‘포스트’는 단순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덜 중요해진 시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최근 더 많이 쓰인다.”

'몇몇 평론가들은 우리가 탈 진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경우;

-the Brexit referendum in the UK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S :대전 이후에 상황들을 악화되어갔다. 트럼프는 다시 한 번 아무 근거 없이 불법으로 투표한 몇 백만 명의 표를 빼면 그가 사실 인기투표도 이겼다고(힐러리가 300만 표 차이로 이긴) 주장했다.

- CIA에서 트럼프의 연설

- Newt Gingrich와 Alisyn Camerota의 대화

A brief history of post-truth

이 낱어는 20세기 중반, 1945년 이후와 1971년 이후의 인종 차별과 같은 형태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트루스는 The Nation magazine에서 고 세르비아계 미국인 극작가 스티브 테시치에 의해 1992년의 한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 이란-콘트라 스캔들과 페르시아 걸프전을 되새기면서, Tesich는 '우리는 자유로운 국민으로서, 어떤 포스트-트루스 시대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개탄했다.

(* 이란 콘트라 스캔들: 중앙아메리카를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니카라과의 좌익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이 지역의 반혁명세력인 콘트라에 정보, 무기, 보급품 등을 제공했던 사건)

- Tesich의 글 이전에 '포스트-트루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진 후'라는 투명한 의미와 더불어, 그리고 진실 자체가 무관하다는 새로운 의미와 더불어 사용된 증거는 없다.

랄프 케이스의 '포스트 트루프 시대'라는 책은 2004년에 출판되었으며, 2005년에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콜버트는 같은 개념과 연관된 일상적인 단어를 대중화했다: truthiness- 비록 꼭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럴싸한 본질 또는 사실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정의 됨.

포스트 트루스는 유일한 특징적인 주장들의 본질에서부터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킨다.

'대안 우파'(alt-right ; alternative right): 주류 정치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논쟁거리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극보수주의 집단을 뜻한다.

- 몇몇 사람들은 alt-right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극우백인우월단체' KKK'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alt-right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대안 우파, alt-right가 이제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ost?

- 접두사 “post”: “past” 했다는 것 보다는 (전후 “postwar”과 같이) 진실이 가려졌다는 의미, 즉 더이상 상관이 없다는 말(by Oxford Dictionary).

- 2005년 스테픈 콜버트(Stephen Colbert): “Truthiness” (정의하자면, 그 내용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를 느낌으로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는 용어를 조지 더블류 부쉬(George W. Bush)가 그냥 “더 끌려서” 내렸던 큰 결정들.

- 예를 들면, 헤리엇 미어스(Harriot Miers)를 미국 대법원으로 임명하는 것 또는 대량 사살 무기가 있는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채, 이라크와 전쟁을 선포한 것의 반응으로 만들.

-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에 관한 진실로 부터 자유로운 캠페인들, 즉, 수백대의 버스에 매주 UN으로 3억 5천 유로를 매주 보내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광고했으며 정치인들이 헝가리와 러시아와 터키에 있는 자기 국민들에 대한 허위정보 캠페인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탈진실은 어떤 사람들이 대담하게 현실을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 끼워 맞추는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보고 있다.

- Truthiness(진실성): 증거 , 논리 , 지적 시험 또는 사실에 관계없이 특정 개인이나 개인의 직감이나 인식을 기반으로 특정 진술이 사실임을 믿거나 주장한다는 것이다. 진실성은 무지한 거짓 주장에서 의견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 인 이중성이나 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이다.

- 1990 년대와 2000 년대에 미국 정치를 둘러싼 논의의 주된 주제는 진실론의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선전의 증가와 사실적 보도 및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향한 적개심의 증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 스티븐 콜버트 (Stephen Colbert)는 2005년 10월 17일에 콜버트 보고서 (The Colbert Report) 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하기 직전에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원래의 스크립트 된 단어인 "진실"은 절대 우스운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처럼 보이는 것, 즉 우리가 존재하고 싶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 트럼프의 수석 대리인인 켈리언 콘웨이(Kellyanne Conway)에 의하면 언론 담당 비서인 셴 스파이서(Sean Spicer)가 취임식때 왔던 인파에 관해 US Park Service가 보여준 수천 개의 빈자리들의 사진을 보고 트럼프는 약간 화가나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를 발표할 의도였다고 한다.

-탈진실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인가? 온전히 정치적인 돌려말하기 인가? 꼭 그렇지 않다. 현재 토론에 보여졌다 싶히 “탈진실”은 더이상 줄일수 없을 정도로 규범적이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해 염려하고 그것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낌으로 오는 걱정의 한 표현이다.

객관적인 진리라는 이상은 한 번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보수적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보적? 아니면 결합된 것 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좌익의 상대론자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진실이 이제는 단순히 우익의 정치적 정보원들이 끌어드렸던 것이다.

철학에 있어서의 진실은 플라투가 (소크라테스를 통해) 지적 거짓 주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돌아간다. 소크라테스가 느끼기에는 무식함은 해결될 수 있었다; 무식하다면 배우면 된다.

더 큰 위험은 자신들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성급해 거짓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진실에 관한 최소한의 정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유명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아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거짓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면 진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진실의 이론이 적절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전복시켰을 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것이냐다. 첫 번째 단계로써는 우리는 때때로 실수도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말한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falsehood)이라고 발언하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에 거짓말(lie)라고 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무지막지함”(willful ignorance)이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인지 확신이 없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 트럼프의 취임식 때 인파

『헛소리에 대해서』(On Bullshit)의 작가 해리 프랭크포트(Harry Frankfurt):

-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 조심성 없고 무관심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 정치적 야비위꾼들이 진실을 알면서도(다수의 사람들도 알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둘러”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단순히 ‘헛소리’가 아니다.

-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탈 진실은 대중의 생각이 거짓말을 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다.

-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그가 사기꾼인지 무관심한건지 냉소적인지 아니면 과대망상증인지 토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진실에 대해 충분히 적대적이어서 탈 진실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철학자로서 나는 탄진실의 개탄스러움에 대해 모든 형태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요지는 새로운 탈진실의 시대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느냐 보다는 진실이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타보 음바키(Thabo Mbeki)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은 서부나라들의 음모이며 AIDS는 마늘과 레몬 주스로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해 30만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경제를 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는 똑같이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거나 더 큰 파괴를 할 수 있다.

- 단순하게 지구온난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이상을 채워줄 진실만 받아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 모든 음모론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이중의 잣대의 권리를 가지도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세계의 기후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음모에 참여해 증거를 조작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사용해 지난 2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부정자들과 다른 이론가들은 관습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해 외설스럽게 높은 기준으로 의심을 하며 그와 나란히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진실이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드린다는 것이다.

- 주된 판단 기준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신념을 어떻게 옹호하느냐이다.

- 이것은 진실을 내팽겨쳐버린게 아니라 진실이 확실히 모아지고 신뢰할 수 있게 사용되어 한 사람이 현실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패한 것이다.

- 물론 이것을 거절함으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약화시킨다.

- 그리고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도) 최적 관심사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옥스포드에 나온 정의를 보고 이 정의가 최근 정치적 논쟁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탈진실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진실은 정치적 관점에서 부차적인 요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탈진실은 이데올로기적 우월주의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실무자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믿을 것을 강요하려고 한다.

탈진실이 왜 일어나는가?

옥스포드에서의 정의는 탈진실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때때로는 진실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은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 한 사람이 너무 뻔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실에 아무 이유 없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개인의 신념에 이익이 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 만약에 한 사람의 신념이 "불편한 진실"로 위협을 느끼면 그 진실을 도전하길 선호할 수 있다.

- 이 일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가끔 우리가 설득시키고 싶은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탈진실과 진실의 관계는 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주장할 때만 발생한다.

- 그러므로 탈진실은 사상적인 우월함을 형성시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적절한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사람이 그것(something)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독제의 조리법(레시피)이다.

우리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될지 보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지가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싶은가?

- 인간이라는 동물은 미신과 공포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장치되어있을 수도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 발전해서 더 높은 기준의 증거를 받아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정부는 범죄율이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옥을 더 만들지 말아야 한다.

탈진실을 저항하는 첫 단계는 태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 이 현상의 뿌리는 몇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 똑같이 인지의 불합리에서 진화했다.
- 이 모든 것은 최근 언론 형성 변화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탈진실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벌써 만들어진 지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 지난 20년의 기후 변화와 백신과 진화의 주제에 대한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는 탈진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전술의 태생을 보게 되었다.
- 과거에는 탐탁지 않은 과학적 이론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이제는 US Park Service의 사진 또는 CNN의 비디오다.

탈진실의 현상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탈진실의 현상은 불투명한 것도 헤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단순해서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 트럼프. 정치인들이 진실을 바꾸고 정치적인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탈진실은 어느 한사람 보다 더 위대하다.
-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에게도 모두 존재한다.
-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이 불가분하게 탈진실과 엮여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둘 다 그 원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과였다.

2. 탈진실을 이해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써의 과학에 대한 부인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John Maynard Keynes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 일어났던 일들은 탈진실의 징후를 보여 왔다. 한 때는 과학적인 결과들이 그것의 방법론적인 권위로 존경받아왔지만, 지금 그 결과들은 공교롭게도 그것들을 반대했던 비전문가들에 의해 공공연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어떤 한 이론을 제시하게 되면 그들은 이 이론이 동료들의 검토과정, 모사시도와 다른 실험 동료들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증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과학자들은 실험적인 증거가 과학 이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규칙들은 꽤 투명하게 이뤄진다.

- 그렇다면 과학계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왜 비과학자들은 그 결과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을 필요하다고 할까. 그들은 정말 과학자들이 해 이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 몇몇 비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의 동기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과학에 대한 부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 특정 과학적인 결과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주장들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은 편향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사실, 특정적인 과학 연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솔직함”과 “공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그 분야에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는 일은 꽤 자주 일어난다.

- 그들의 목표는 과학적인 신념을 깎아내리고 과학적인 실험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계속 의심하는 비판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 어떤 점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가장 강한 주장이 진실을 제공 할 수는 없지만 오직 증거에 기반한 정당한 이유에 기초한 신념을 보증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 나는 과학이 절대 그런 인식론자들 때문에 곤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 이론이 증거들에 의해 잘 뒷받침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만약 어떤 이가 실증적 설명에 대해 가장 높은 기준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과학 이론들을 반증하기 위해 사이비 과학의 이론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위의 상황을 보여주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예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가장 주된 원인인지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들이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대중들은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과학적인 논란이 있다고 속아오고 있다.

나의 목표는 이런 과학을 부인하는 현상들이 탈진실화를 이해하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1950년대 담배 회사들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엄청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시작된 과학에 대한 부인의 시발점이 된 그 때로 더 거슬러 올라 가 봐야한다.

“의심은 우리의 산물”

- Ari Rabin-Havt의 Lies, Incorporated에서는 기업의 자금을 받으며 이뤄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로비활동들 (혹은 거짓말)이 기후변화, 총기, 이민, 의료, 국가채무, 유권자 개혁, 낙태 그리고 동성결혼과 같은 정치적인 입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경제적인 이득과 탈진실화의 정책들에 대한 관련성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 『의혹을 팝니다』의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와 에릭 컨웨이(Eric Conway)는 역사를 추적해 담배 산업 연구 감사위원회(TIRC)의 과학자들이 과학의 부정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였는지 보여준다. 나중에 들어나는 이념적인 관점보다 이 이야기의 경제적 관점은 어떻게 정치적인 기반의 반대가 화폐이자에 뿌리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가짜 뉴스가 이익을 추구하는 클릭베이트(Clickbait)에서 완전한 허위 사실이 되었는지 이야기 할 것인지 예지하고 있다.

; 1953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된다. 최근에 담뱃진과 실험실 쥐의 암을 연관한 파괴적인 학술지가 발행되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 담배 주력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였다. 회담의 대표는 홍보활동에 전설적인 인물 존 힐(John Hill)이 우리끼리 누구의 담배가 더 건강한지에 대해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를 후원해 “과학과 싸울” 통일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간부들은 힐의 지도하에 새로운 담배 연구 감사위원회를 기금하기로 동의한다. TIRC의 임무는 담배 피는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이것에 연관하며 전에 주장되었던 연구는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고 대중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효과가 있었다. 과학이 담배 피는 것과 암은 “결론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부각해 (과학은 어떤 두 변수에 대해서도 이것을 할 수 없다) TIRC는 수많은 미국 신문에 한면 전체를 빌려 430만명에게 뺏어 나가 거의 해결 된 과학에 대한 혼돈과 의심을 조성해가는 효과를 보였다. 라빈합트(Rabin-Havt)가 표현하길:

담배 산업 연구 위원회는 담배 연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언론에 담배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각각의 면이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정치인들이 담배 회사들의 영리한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장하려했다.

『의혹을 팝니다』의 오레스케스와 컨웨이는 이 설계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작가들은 다른 과학 부인자들이 “담배 전략”을 따라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참여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1969년 담배 경영진이 “의심은 일반 대중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실의 시체’와 경쟁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작성한 악명 높은 내부 메모 이후 해야 할 일을 분명해졌다. 당신을 위한 전문가들은 찾고 자금을 대라 이것을 사용해 언론에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제안해라 당신의 의견을 홍보하고 정치적 로비를 해라 그리고 당신이 대중을 혼란시키는 과학적 결과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면 된다.

돈을 받은 전문가들은 논란거리와 밈(meme)로 변환된 가짜 연구를 제작 한 다음 유료 방송으로 TV에서 반복으로 노출시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번지게 하고 필요한 경우 유료 광고 캠페인을 통해 대중 의식을 습득시킨다.

기후변화 그 이상

Merchants of Doubt 에서 Oreskes와 Conway는 1950년대 “담배 전략” 때부터 오늘 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까지의 일들을 일직선에 나타내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

장에서, 재정 지원은 화석연료산업 과 Heartland Institute의 문제적인 “think tank” 사업에서 온 것으로 보여 졌다. Heartland의 초기 자금 중 일부를 담배 사업의 거물인 Philip Morris이 대줬다는 것은 참 개탄스럽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또 다른 일부를 대 준 재정 지원가들로 Exxon-Mobil과 the Koch brothers도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에너지 자원을 소유한 주주들이 있던 Koch Industries의 Carles와 David Koch와 동맹을 맺은 재단들로부터 약 1440만 달러 (\$14.4million)를 받았다.

일부 유출 된 문서를 바탕으로 the New York Times는 “공립학교의 지구 온난화 교육을 훼손하고 화석이 과학적 발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전략에 대해 조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연료 배출은 지구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한다.

일부 대학의 과학자들(Heartland 행사에서 연설 할 때 록 스타처럼 대우받는 사람들)조차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없거나 그것이 “정착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은 농담으로 보인다. 2004년 당시, 연구원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928개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는데, 인위적 기후 변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정확히 아무런 논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2012년 개정 연구 논문에서 13,950개의 논문 중 0.17%의 이견을 발견했다.

왜 대중들은 기후 변화가 실질적인지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것을 증진하는 데 재정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1998년 미국 석유 협회(API)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교토 의정서의 주요 기후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Washington D.C. 사무소에서 일련의 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엑손(Exxon), 셰브론(Chevron),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를 포함한 국내 최대 석유 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존 힐 (John Hill)의 1953년 유령 담배 회사 임원들도 참석했는지 궁금하다. 이 회의는 아마도 기밀로 진행되었으나, 거의 즉시 누설되어 대중들은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알기까지 40년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 평범한 시민들은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을 “전통적인 지혜”로 “이해”(인식)한다.
- 미디어는 기후 과학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해”(인식)한다.
- 언론 보도는 기후 과학의 균형과 현재의 “일반적인 지혜”에 도전하는 관점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반영한다.
- 산업계 수석 리더십은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을 이해함으로써 기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사람들에게보다 강력한 대사를 제공한다.
- 범위 과학의 기초 위에서 교토 의정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인다.

"담배 전략"과 API 실행 계획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유출된 메모를 읽으면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 중 중요한 부분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탈진실이 현실을 창조하는 부분이자 요소로 보인다.

“본인, 새로운 구성원, 그리고 5명의 무소속의 과학자들로 팀을 만들어 언론 활동에 참여하도록 훈련시킨다.” “세계 기후 데이터 센터를 비영리 교육 재단을 설립한다.” 그리고 “의회의 임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교육시킨다.”

최종적으로 API의 전략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성공했다. “진실”은 무관했다.

그 결과로 대중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있다. 그리고 (제임스 인호 의원과 테트 크루즈 의원과 같은 저명한 공화당원들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아직도 기후 변화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진실에 대한 암시

이런 사례에 대한 교훈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 듣자하니 더 이상 이런 계획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피트너십이 가정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증거를 보기 보다는 “팀을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올 수 있고 사실 확인은 폄하될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탈진실이 현실을 창조하는 부분이자 요소로 보인다. 사실과 진실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귀찮게 궤적을 감추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birther(*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믿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로 비하하는 말))” 음모를 수년 동안 조성하고 난 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것을 배웠을 것이다. 한 사람의 지지자들이 증거가 말하는 것보다 어느 편에 서있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면 진실은 정말로 의견에 종속되었다.

우리가 오늘날의 탈진실 세계에서 사용했던 전략은 이전의 과학으로 합의된 내용과 맞서 싸워 이겼던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캠페인으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기후 변화의 진실을 거부할 수 있다면 왜 살인 율에 대해 그렇지 못하겠는가? 만약 담배와 암의 연관성이 수십년 동안 잘못된 사실과 의심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왜 사람들이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만찬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이다시피 같이 뿌리에서 오는 같은 전력이다. 이제는 목표가 더 커져 현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이념이 과학을 짊 밟는 세상에서 탈진실은 불가피한 다음 단계이다.